

#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 환영”

### 전북대, 복지부와 시설 공동활용 방안 제안 주목 세부적 인체감염병·동물난치병 동시 수행 입장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유치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연구소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병연구소 분원으로 지정된 후, 전라북도 및 질병관리본부와 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해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대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전라북도가 제안한 국가감염병연구원 분원의 전북 유치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 시설의 완전 이전보다는 인체 감염병 연구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

동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기존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조류독감이나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난치병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최근 에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인체 감염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전북지역은 농생명 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의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내에 국가 연구기관인 감염병연구소를 두게 되면 국가예산 절감과 중복투자 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연구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 설립지로 검토하고 있는 오송 지역의 경우, 민가가 근접해 있어 인체 감염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우선은 오송에 분원을 두되, 인수공통 연구소 인근으로 신속 이전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분원을 두고 추후 인근에 분원을 신축해 감염병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유치해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면, 운영예산과 연구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장비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감염병과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연구 과제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정부가 시급히 요구하는 감염병 연구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본연의 역합인 인재양성 기능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지정하고, 관·학 협력을 통해 인력이나 시설을 공동 활용한다면, 향후 감염병연구소 분원의 전북 유치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인수공통연구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처럼 상호 협력과 협치 모델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가 신하 전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분원으로 활용하면 감염병 연구 및 치료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국립연구소 분원 전환에 긍정적이다”고 언급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유치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연구소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 전주시민축구단, 홈 첫승 노린다

### 내일 강릉시청과 K3리그 3라운드 홈경기

전주시민축구단(감독 양영철)이 하 전주이 홈에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전주는 오는 30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강릉시청축구단과 '2020 K3리그 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최근 두 경기에서 연일 패하며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주는 이날 경기에서 더 이상 패배는 없다는 각오로 승리에 도전한다.

지난 24일 열린 김해시청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초반 수비진이 흔들리면서 쉽게 2골을 내줬지만, 후반전에는 수비와 공격에서 안정감을 찾으면서 득점에 성공하고 주도권을 잡았지만 역전에는 실패했다. 전주는 이날 홈경기에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 초반부터 제공권 장악 등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펼쳐나 갈 계획이다.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예 '울산고3인방'이 공수에서 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양영철 감독은 “우리 팀 선수들이 다른 팀에 비해 나이가 어려 아



직 경험이 부족해 초반에 실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는 “선수들이 짧은 만큼 파이팅과 패기를 앞세워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감독은 “홈에서 열리는 만큼 공격 축구로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 경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유튜브스포츠를 통해 전 경기 생중계되며, 이날 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 전문인력·사회혁신리더 양성... 안전·환경 등 문제 해결기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ety Innovation, 이하 DSI)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인력과 사회혁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트, 소셜벤처 테스트베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혁신 역량, 지역 사회혁신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모델이 그것이다.  
센터는 지역 내 활동가를 디지털 기술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DSI 전문가로 양성하는 집중 교육과 DSI 솔루션 지원 컨설팅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는 지역 DSI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서울, 춘천, 전북 세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를 주관으로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 운영하게 된다.  
전주대가 추진 중인 리빙랩 프로젝

또, 지역 내 사회 문제를 리빙랩 방식의 DSI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수행한다.  
전북 DSI 지원센터 책임자 전주대 박형용 교수는 “DSI 지원센터는 향후 정부, 기업의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의 허브 역할에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국내 사회혁신 기관의 관심이 집중될 사업이다”며, “지역 내 다양한 사회혁신 사업 및 활동에 DSI 솔루션이 접목될 수 있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ety Innovation, 이하 DSI)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록 DSI 리더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등교수업 지원의 달’

### 전북교육청, 내달 30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원이 수업·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교사 대상 외부 연수·회의·행사·출장 요청 등을 지양하고, 필수 공문 및 회의인 경우에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교의 등교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영인바이오 기술세미나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반려동물 산업학과와 (주)영인바이오는 ‘노령반려동물의 영양소재 개발 현황 및 기술 분석’을 주제로 기술교류네트워킹 R&D 기획지원 기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 최근 전북대 익산캠퍼스 동물의료센터 김형년홀에서 열린 기술세미나는 영인바이오 최인정 대표 등 도내 중소기업과 원광대 및 전북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표로 진행된 이번 기술세미나는 ‘노령반려동물 산업 동향(박태근 한국애견신문 대표)’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영양제 분야의 현재 동

향과 선행기술 분석(정진석 디엔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 ‘반려동물영양성분의 기능평가와 연구방법(박철 전북대 교수)’ 발표가 이어졌다.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장 김옥진 교수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이 연간 10조원으로 집계될 정도로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고, 노령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기술세미나는 기업 중심의 우수제품 개발 촉진 및 기업재원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양원 기자

## 군산대, 5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하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군산대학교는 2016년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유형 I 대학으로 새롭게 진입해 5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

게 대입전형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 고교-대학 연계 활동 전개, 대입전형 정보제공과 전형 단순화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를 통해 유형 I 대학 67개교, 유형 II 대학 8개교 등 총 75개교의 지원 대학이 선정되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